

# 2022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심의평

(작가 분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2022 경기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은 예술인의 미술시장 진입 견인 및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작가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를 볼 때 기존의 미술지원사업과는 다른,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미술시장, 나아가 미술계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생적인 작가발굴과 유통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리고 판매자가 화랑이라면 화랑 역시도 창작자들로부터 그 운영과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받는다. 시장은 이러한 상호평가를 전제로 사실 매우 활발하게, 비교적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작가를 발굴하는 것’은 다양한 상업기관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본질적 역량이고 작가들 역시 상업성과 별개로 이미 여러 제도기관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러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본연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시장 편향적인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식의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시장이 다시 붐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지원자 327인 중 50인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점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가지게 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작품의 예술성과 시장성, 작가의 역량과 기대효과 및 아트경기에서 진행될 전시·판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신청자료에 총 10점 이내의 작품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일부 작가의 경우 판매할 수 있는 작품 수가 5점 미만인 경우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회화나 드로잉과 같이 전통적인 장르가 아닌 영상, 퍼포먼스 등의 작품을 신청한 지원자들의 경우 영상작품의 디바이스 또는 에디션 넘버 등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 ‘미술시장 진입’을 위해 이번 사업에 신청한 지원자라면 미술 애호가들이 구매할 작품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창작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제안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 미술시장 역시 비평의 현장과 마찬가지로 작품 핸들링의 기본적인 매뉴얼, 표구방법과 표구된 상태, 입체작품이라면 좌대, 영상이라면 파일 재생을 위한 디바이스, 판화라면 에디션의 숫자 등 다양하고 폭넓은 리서치를 통해 작가들을 판단한다는 것을 창작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특히 최종 선정된 50인의 작가들과 <아트경기> 사업의 실현과정이 2022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협력자와 작가들의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협업은 더 풍성한 성취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선정된 50인의 창작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작가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심의위원 : 김은영, 박영택, 황정우, 이단지**